

■ 재가불자의 스님 비하, 어떻게 봐야 하나

“내용 간절할수록 표현은 겸손해야”

어느 불교 칼럼니스트가 인터넷 언론에 연재한 글이 구설수에 올랐다. “중놈” 시절 잊은 조계종 승려에게 웬 3배?, “스님 성불 막는 오빠부대 빠수이” 등의 제목은 자못 선정적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필자가 다니는 직장에 이의를 제기했고, 징계를 받은 필자는 칼럼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본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가불자의 스님 비하 논란은 잇을 만하면 벌어지는 현상이다. 지난해 불교방송에선 사장이 라디오 진행자 스님들을 업신여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흥역을 치렀다. 원로 재가이사들의 스님 이사에 대한 하대도 말밭에 올랐다. 이와 함께 대한불교진흥원에선 직원이 온라인상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음해하는 댓글을 올린 것이 들뜬 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사이버세계에선 ‘중놈’이나 ‘땡종’보다 훨씬 불성사나운 욕설과 폄훼가 마구잡이로 돌아다닌다.

승보(僧寶)에 대한 성실한 공경을 주장하는 쪽은 재가자는 승단을 외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건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중히 여기는 쪽은 ‘스님도 시민이며 비판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고 맞선다.

작년 4월엔 김중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0·27법안은 승려가 축첩하고 몇십억을 횡령해 벌 받은 것”이라고 국회에서 발언했다가, 지역구 사찰에 거둬 사과를 해야 했다. 눈여겨볼 점은 지위와 학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출가자에 대

한 멸시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최훈동 한별정신건강병원장은 이를 정신분석학 용어인 ‘투사(投射)’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투사란 쉽게 말해 ‘남탓’이고 ‘떠넘기기’다. 타인을 비난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적 위치를 확인하려는 자기애적인 행동이다. 아울러 자신의 실패를 철저히 외부적 요인으로 돌려 위안을 받으려는 심리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재가자일수록 스님을 권력이나 벼슬로 보려는 경

지위 학식 높을수록 스님 멸시 경향 강해

뒷말 듣지 않으려면 빈틈 보이지 말아야

향이 강하다. 최훈동 원장은 “오�히려 스스로 깨닫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투사의 심리에 빠져들기 쉽다”며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존재를 공격함으로써 자기의 흠결과 열등감을 은폐하고 해소하려는 무의식적인 기제”라고 밝혔다.

한편으로 스님을 특권으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특권으로 ‘비춰지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은, 스님들이 자성해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는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원한은 절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사찰에서 스님과 재가불자가 합장하고 있는 모습.

2012년 6월 한국불교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사부대중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는 야단법석을 열었다. 재가불자들은 “재가자들이 언제나 도반으로 여기지 않고 하대하거나 멸시하는 일부 스님들의 권위주의적 모습”에 섭섭함을 느꼈다. 계급의식이 스님과 불자를 갈라놓고,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부처님은 사람의 됴됨이는 그의 행색이 아니라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의 평등사상은 부자집의 변소를 치우며 살아가는 최하층 천민 니체를 위호한 일화에서 찾을 수 있다. 옷에 묻은 오물이 부처님에게 뵈까봐 자리를 피하던 니제에게, 부처님은 “비록 내가 똥을 치우고 옷을 더럽혔을망정 너의 착한 마음에선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며 “스스로 천하게 여기지 말라”고 제도했다. “성직자라도 살

인을 저지르면 살인자라 하지 성직자라 하지 않는다”면서 인도 코살라국 파세나디 왕에게 행실의 중요도를 역설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어느 종교나 청정과 자비를 생명으로 한다. 곧 종교인의 이윤배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은 어찌 면 숙명일 수 있다. 결국 뒷말을 듣지 않으려면, 결코 빈틈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승가(僧伽, Sangha)의 본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스님들로 구성된 교단이 아니라 대중공의와 무소유의 원칙을 지키는 바람직한 공동체라는 해석이다. 해인사승가 대학 강사 원철스님 역시 “스님이라는 권위만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며 “불교를 비방하는 논리에 대응하려면 그보다 더 뛰어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거 없는 악담

에 대한선 단호하게 대처하되, 스님으로서의 위의를 지키고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단순하지만 확실한 해법인 셈이다.

아울러 글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우선 세상의 마음을 사야한다는 충고는 설득력 있게 들린다. 당대 최고의 문장이었던 연암 박지원은 저서인 <공작관문고자서>에서 “자기만 혼자 아는 것은 언제나 남이 알아주지 않아 늘 걱정이고,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남이 먼저 앎을 미워한다”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글쓰기를 경계했다. 신규택 연세대 철학과 교수는 “재가자는 스님을 존경하고 스님은 재가자를 존중하는 관용의 문화가 아쉽다”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간절할수록 표현은 더욱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영섭 기자 fual@ibulgyo.com

부안 개암사, 이룸다운동행에 1000만원

탄자니아 학교 건립 동참

부안 개암사 주지 재안스님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 재안스님은 지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기부재단 이룸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신도들과 심심일만으로 마련한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사중 상황도 어려운데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건립을 위해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며 “후원금은 학교 건립을 위해 유용하게 잘 쓰겠다”고 말했다. 재안스님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신도들과 함께 장학금 지원, 자비의 쌀 전달 등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며 “아프리카 학교 건립은 중도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부안 개암사 주지 재안스님(오른쪽)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건립을 위해 신도들과 함께 모은 1000만원을 이룸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위안부’ 표현, 제대로 알고 쓰자

염태규 기자의 현장에서

che11@ibulgyo.com



표기할 때는 범칙 주제인 일본군을 명기하고 따옴표를 표기한 일본군 ‘위안부’로 통일해서 쓰고 있다. 영어로는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일본군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로 쓰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위안부를 대체하는 용어로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2월28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을 다녀왔다. 3·1절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인권센터 착공하는 행사였다. 사회적 관심을 대변하듯이 이날 행사에는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많은 내빈들이 참가했다. 하지만 내빈들의 축사를 들으며 아쉬움이 들었다. 위안부라는 표현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축사에서 말하는 의미는 이해가 됐지만 위안부라는 표현이 반복돼 듣기 거부했다.

보통 피해자 할머니들을 가리키는 말로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위안부라는 용어다. 하지만 위안부는 지극히 일본군 중심적인 표현으로 지양해야 할 용어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표현인 ‘정신대’나 일본군 위안부 실상을 감추기 위해 자발성을 강조해 일본이 만들어낸 ‘종군위안부’ 등의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다. 위안부라는 표현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위안부를

그럼에도 여전히 정신대 할머니나 위안부 할머니 등 잘못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할머니들을 정신대나 종군위안부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용어의 잘못된 사용은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위안부의 명칭 문제에 대해 익숙하다는 이유로, 널리 사용된다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적어도 위안부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일본군 위안부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으로 명확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과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고 규탄하기에 앞서 부 실상을 감추기 위해 자발성을 강조해 일본이 만들어낸 ‘종군위안부’ 등의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다. 위안부라는 표현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위안부를

“경제생활하며 활기차게” 서울노인복지센터 노인일자리 발대식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최유스님)는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2014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 정세균 국회의원,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복동 종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노

인일자리 사업 참여가 확정된 노인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6개 사업단에 비해 대폭 확대돼 15개 사업단이 운영된다. 사업 분야는 공익형, 시장형, 교육형으로 학교급식도우미, 은빛행복가게, 미술관 해

설사, 종로문화해설사, 사서 및 독서도우미 등 15개 사업에서 총 306명이 참가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발대식을 계기로 앞으로도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노인 적합업종 개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발대식(사진)에서 참가자들은 활동선서를 통해 각자 맡은 사업에 최선을 다하며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으며, 이어 조희정 힘찬강사연구소

강사가 ‘100세 노후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강의했다.

관장 최유스님은 “지난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능력과 경제적 활동을 접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며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욕구와 자기발전적인 욕구를 결합해 더욱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호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서는 불교문화진흥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호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사찰 및 관계 기관에서는 불교문화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사례 접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헤일

■ 사업명 _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호사업

■ 대상 _ 사찰, 스님, 또는 관계기관 등

■ 협조요청사항

- 1) 불교문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홍보
- 2)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사례 접수
- 3)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관련 계약 상황 발생 시 종단 표준계약서 사용

■ 접수기간 _ 년 중

■ 접수처 _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02)2011-1779 (sch@buddhism.or.kr)

■ 불교문화지적재산권 안내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호 매뉴얼 및 사례 보고서’ 참조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이란?

불교문화와 관련하여 종단, 사찰, 스님 또는 관계인들이 만들었거나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Ex) 불교미술, 불교음악, 의식과 의례, 출판물, 영상물, 방송물 등이 이에 해당되며, 자세한 내용은 조계종 홈페이지 ‘불교문화콘텐츠 권리강화를 위한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호 매뉴얼 및 사례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불교문화진흥법 제7조> (불교문화 보호)

- ① 종단과 교구 본 · 말사는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종단과 교구 본 · 말사는 불교문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단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